

나의 민원 인쇄하기

*인쇄 페이지 열람 시 인쇄 이력이 기록됩니다.

인쇄자 : 강태환

[민원인입력사항]

신청번호	1AA-1806-023454	신청일	2018-06-03 07:06:15
신청인구분	개인		
신청인이름	강태환		
연락처		휴대전화	010-3690-2336
주소	[61700]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84번길 7, 덕산아파트 101동 2006호		
진행상황통보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전자우편	taehwan.kang@gmail.com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	민간인 사찰
민원내용보기	안녕하세요.
<p>저는 광주에서 살고있는 청년입니다.</p>	
<p>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84번길 7, 덕산아파트 101동 2106호에는 정보기관에서 고용한 정보원분들이 24시간 계시는데 뚜렷한 이유없이 저를 전자적 장비를 통해서 감시하고 동향을 파악하세요.</p>	
<p>저는 평범한 광주시민입니다. 그런데 2014년 부터 정보기관에서 고롭히기 시작했어요. 정보기관에서 가짜 정보를 생산해내서 자신들의 실적을 채울려고 제가 희생양으로 졌네요.</p>	
<p>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을 고소한 적도 있지만 증거 불충분이라고 각하처분이 되었어요.</p>	
<p>고소장 접수하러 검찰청 들어갈때 경찰과 국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분들이 많아서 당연히 각하 될 줄 알았어요.</p>	
<p>고소장 접수날에 어떤 남자분이 국정원에 전화를 해서 여자분한테 국정원장님을 찾더니 없다고 하니까 자신이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설명하겠다고 하더군요..</p>	
<p>그래서 저는 그때 감이 왔어요.. "아 이새끼들 또 거짓말 하려고 그러는구나"</p>	
<p>2018년 5월 2일 덕산아파트 101동 2106호에서는 정보원 1명과 국정원 직원1명이 사망</p>	

하였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정보원에게 돈을 지급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싸우다가 그랬어요. 여기 국정원 직원 분들은 조직폭력배도 동원하시는데 제가 고소 했던 조직폭력배 분들이랑 아직도 같이 잘 지내더라고요.

국정원 직원이랑 조직폭력배랑 돈 주고 받고 잘 다니면 완전 범죄 집단이네요..

국정원이 죄가없는 선량한 시민도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아무나 찍은 다음에 거짓으로 보고 해서 실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거짓말이 탈로 날까봐 이후에는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저는 국정원 직원에게 비공개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한 적도 있어요.
국정원이 제안을 거부 하였어요.

서훈 국정원장님도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때 거짓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제석산에서 내려왔을때 살해명령을 내렸다가 취소하셨어요.
그래서 국정원장님께는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저는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떳떳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한번 따져보자니까

국정원은 절대 안된대요.

양심도 없고 자신이 만든 가짜정보를 스스로 믿는 정보기관이 어떻게 신뢰를 받겠어요?
?

양심 있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 하나 같이 따져봅시다.

내가 문제있는지 정보기관이 문제있는지 같이 해결해봐요.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피신고자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록기관

근무처(상호 명)	
서훈	국정원장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국가정보원 민원실		
담당자(연락처)	민원담당 (111)		
접수일	2018-06-04 09:45:2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6-030284
답변일	2018-06-04 09:45:25		
답변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입니다. 민원을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2. 귀하께서는 국가정보원에 의한 감시 등 불법사찰을 당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3. 다만, 제기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당원과 무관하여 별도의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귀하의 법적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자료를 구비하여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5.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귀하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인쇄